시민들이 체감할만한 변화 이끄는데 최선 다할 것

정헌율 익산시장이 취임 1년을 맞게 됐다.
정 시장은 늦은 출발로 발생한 다른 지자체장들과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취임 후 지금까지 휴일도 없이 바쁘게 시정에 매진했다.
그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거뒀다.
다만, 낭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매립 사건으로 인해 주민 건강권이 위협받는 등 아쉬운 점도 있었다.
이에 본보는, 정헌율 익산시장을 만나 지난 1년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시정운영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지난 1년간 익산시장으로 시정을 이끌어 온 소회?

취임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책임감과 부담감이 컸지만 부지런히 현장을 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산적한 현안을 챙기면서 열심히 달려왔다.

지난 1년은 지역사회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소통과 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시간이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를 새로운 시정 슬로건으로 정하고 농정 혁신과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등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발전에 매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들을 토대로 올해는 시민들이 체감할만한 가시적인 성과와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재선거로 취임해 임기가 2년여에 불과한데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은?

지역의 장기발전 계획을 세우거나 미래 청사진을 구상할 때는 보통 10년에서 20년, 길게는 백년까지 내다보고 설계한다. 2년은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서 성과를 보기까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년은 전임 시장이 진행해오던 사업들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 현안 과제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데 방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해왔으며 신규 사업보다는 표류하던 현안들에 대한 재검토와 방향설정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했다.

이와 함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해 왔다.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친서민 정책들을 통해 어려운 서민생활을 돌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취임 후 1년 스스로 시정을 평가한다면?

늦은 출발로 발생한 다른 지자체장들과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취임 후 지금까지 휴일도 없이 밤잠 줄여가며 후회 없이 일했다.

평가는 시민들이 해 주시겠지만 지역발전을 향한 열정과 노력만은 알아주시길 바란다.

지난 해 연말 평가에서 익산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하며 시정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지난 1년간의 성과는?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34개 기업 분양
>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큰 호응'
> 북부권 농업행정 타운 조성 '시동'
>
> KTX 익산역, 지역간 연계교통망 구축해야
> 국가식품클러스터 경쟁력 제고 위해
> 2단계 사업 등 연속성 있게 추진할 것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기업유치에 매진한 결과 취임 후 산업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34개 기업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3,051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이 50%에 육박하며 안정적 궤도에 올라섰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역시 취임 당시 9% 수준이었던 것이 현재는 공고대비 35%까지 상승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안정적 생활기반 제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정책을 추진해서 당초 목표를 초과한 1만951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전문적인 업무경험과 능력을 쌓아 민간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익산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젊은 층의 호응을 얻었다.

새로운 경제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환경을 구축하고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육성 및 경영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 제공하게 된다.

핵심공약 중 하나인 북부권 농업행정 타운 조성도 시동을 걸었다. 농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미래농정국을 신설하고 농업현장의 중심인 북부권으로 이전했다.

정부의 복지허브화 정책에 부응해 복지서비스 향상과 사각지대 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여 온 결과 전국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복지허브화 부문 대상을 포함한 5개 부문을 수상하며 복지 선진도시로서 위상을 높였으며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예산편성 순기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펼친 결과 6,50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안정적인 시정 운영 동력을 마련했다.

▲시정활동을 펼치면서 아쉬웠던 점은?

임기 중 낭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매립 사건으로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발생 초기 환경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복구비용을 시가 떠안을 위기에 처했지만 적극적인 대응과 설득으로 환경부의 개입을 유도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현재 환경부와 익산시가 함께 6개 업체에 조치명령을 내리는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완전한 복구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고 걸림돌도 많겠지만 환경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차질 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은?

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익산 역시 2002년 337,240명을 정점으로 매년 2,000명 정도씩 감소하고 있다.

현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취임 직후 공무원 중심의 강력한 인구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작년 말 30만 붕괴 직전까지 갔던 인구가 올해 초부터 증가추세로 전환하여 3월 말 기준 30만1,392명을 기록하면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월 조직개편과 함께 인구정책을 전담할 인구정책계를 신설하여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체계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는 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산업기반이 안정화되는 단계에 이르면 인구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낙관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 줄어드는 인구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인구유입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출산장려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첫째부터 지급하기로 하고 지원액도 첫째 50만원에서 다섯째 천만 원까지 대폭 상향했다. 또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해 타 지역에서 전입한 관내 대학생에게 최대 8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귀농인 영농자금 확대를 통해 도시민 유치에도 발 벗고 나설 계획이다.

▲KTX 익산역이 전북도 대표역으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복안은?

KTX 익산역이 전라북도 중심역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연계교통망을 구축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권 광역 전철망 구축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 전북권 광역전철망 사업은 전주-완주-익산-김제-군산 등 중추도시생활권 5개 지역과 정읍, 새만금, 논산을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철을 이용해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전라선과 호남선 복선전철 노선을 활용해 중간 정차역을 신설하고, 대중교통과 교통카드 환승만 연결하면 배차간격 15~20분의 완벽한 전철이 탄생하게 된다.

익산역을 중심으로 KTX 정차역 및 군산을 기종점으로 하는 X자형 전철망이 구축되면 중추생활권을 거점으로 지역 생활권 간 이뤄지는 통근, 통학, 관광 및 비즈니스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경부선을 활용해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대구광역권 전철화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기존 교통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투자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고 출퇴근 편의, 시간 및 비용 단축,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KTX에 의한 고속화시대의 편의를 전북권 내에 확대하여 도시간 연계 발전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19대 대선 전북지역 핵심공약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시군 및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며 대응해 나가겠다.

▲익산의 미래 비전과 앞으로 시정운영 계획은?

익산은 KTX, 세계유산,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차별화된 3대 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 이 기회요인을 잘 살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KTX 익산역은 호남, 전라, 장항선이 분기되는 국가기간교통망 결절지로서 국토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작지 않다. 원활한 접근성을 활용한 역세권 개발, 광역전철망 구축 등이 지역발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역사문화도시 익산의 위상이 격상됨에 따라 이를 관광산업과 연계하고 다양한 역사·문화·생태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식품산업이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동북아 식품시장 진출을 노리는 국내외 기업들의 입주가 줄을 잇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지역 내 농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하여 기업에 수요자 맞춤형 고품질 원료를 조달함으로써 농업과 식품산업의 상생 협력 및 동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성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1단계 종료와 함께 2단계 사업 및 배후도시 조성까지 연속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취임 1주년 인사 한 말씀?

부족한 사람에게 중요한 책무를 맡겨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신뢰로 시정발전의 동력이 되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지난 1년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하면서 시민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시민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취임 1년이 임기반환점이 된 상황이라 마음은 조급하지만 당장의 성과보다 멀리 백년을 내다보면서 성장의 발판과 기틀을 다지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익산=장양원 기자